

2026년 1월 22일

KIWOOM 이슈 분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퀀트/자산배분 최재원 cjw5056@kiwoom.com

시황/ESG 이성훈 sh1076@kiwoom.com

코스피 5,000pt 돌파 이후 장세와 실적 점검

SUMMARY

- ✓ 실적,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인 코스피 상승 경로는 유효할 것으로 전망. 다만,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 속도로 인해 기술적으로 과열 부담이 누적되어 있으며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속도 조절은 염두에 두어야 할 구간
- ✓연초 이후 대형주로의 극심한 쏠림 장세가 진행된 가운데 코스피 5,000pt 레벨 돌파 이후 종목 확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 확산 국면 속 본격적인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종목 선별이 필요
- ✓연초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세에도 기업 실적 상승이 뒷받침되며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은 10.48 배로 5년 평균 수준에 위치. 4Q 역시 양호한 실적 성장률이 예상되나, 어닝 시즌을 앞두고 수정된 실적 전망은 상향 보다 하향 조정되는 의견 비중이 앞서며 IT 및 소수 대형주에 치우친 이익모멘텀 연출
- ✓풍부한 대기자금 수요를 바탕으로 실적과 멀티플 리레이팅이 양축을 지탱하며 증시는 상승 흐름 연출 중. 다만, 단기 상승 피로감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 이익모멘텀 개선 그리고 펀더멘털 대비 상승여력을 남겨두고 있는 종목군으로의 압축 대응을 통해 변동성 확대 대비 필요

강세장 경로는 유지될 전망이나, 속도 조절은 염두에 뒤편할 구간

연초 이후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대비 월등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1월 한달 간 (21일 종가 기준) 16.5% 상승하며,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01년 3월 : +22.5%, '25년 10월 : +19.9%, '01년 11월 : +19.7%). 코스피가 이토록 가파른 랠리를 펼치고 있는 핵심 동력은 실적과 유동성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에 기반한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된 결과 연초 이후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는 16.8% 상승했다. 또한, 동 기간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 예탁금도 20일 기준 95.5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1월 말 SK하이닉스와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이후 코스피의 추가적인 이익 레벨업이 가능하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투자 세제 지원 목적의 세법 개정(국민성장펀드, RIA 계좌 등) 등을 감안하면 실적과 유동성에 기반한 상승 경로는 중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승 경로는 지속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속도 조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연초 이후 가파른 속도로 코스피가 상승한 결과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 코스피 이격도는 현재 129.9%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상승했다. RSI(상대강도지수) 기준으로 봐도 현재 84pt로 명확하게 코스피는 기술적 과열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다. 즉, 코스피가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열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초 이후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등 트럼프발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그린란드 병합 관련 무력 활용하지 않을 것")과 그린란드 관세 철회 결정에 힘입어 현재 지정학적 노이즈는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지율 관리가 절실한 트럼프 입장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관세 불확실성을 재차 야기했던 상황이며, 최근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같이 추가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증시의 추세적인 경로를 바꿀 이슈는 아니지만 연초 이후 기술적 과열 국면에 진입한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와 코스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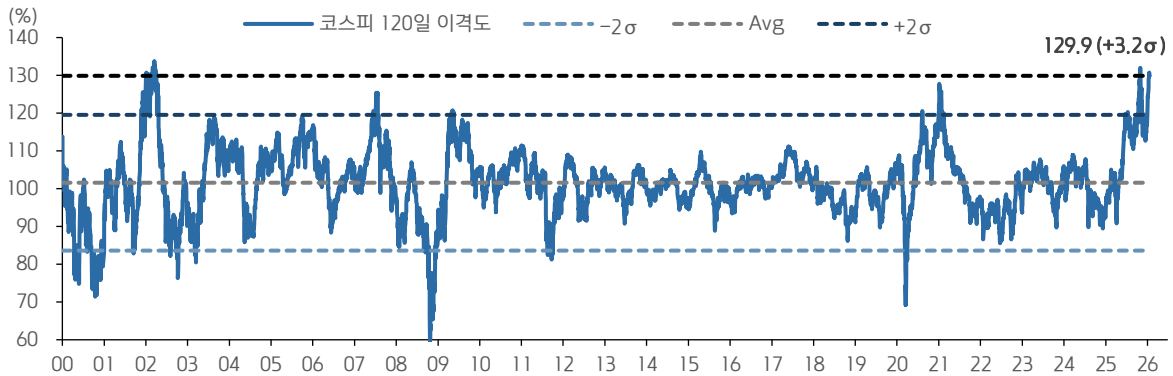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고객예탁금과 코스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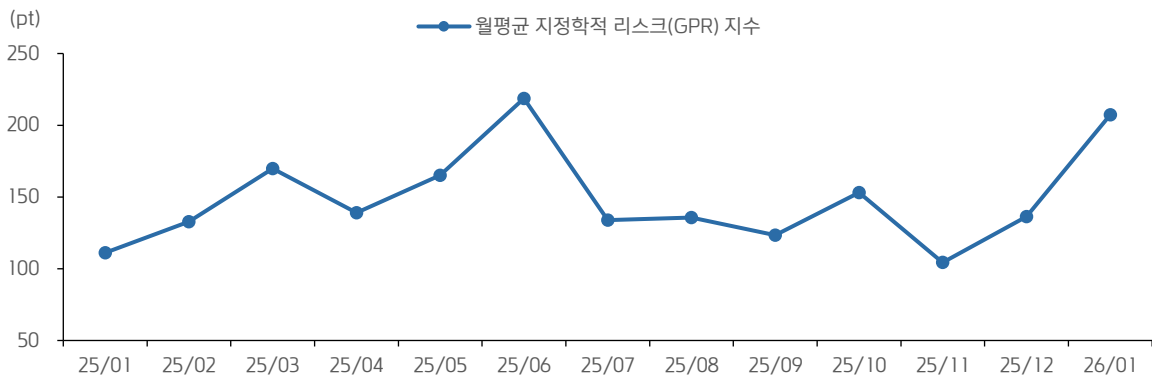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 코스피 이격도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이후 월평균 지정학적 리스크(GPR)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5,000pt 도달 이후, 쓸림 해소 → 종목 확산 국면을 대비할 필요

연초 코스피 급등의 주된 배경에는 대형주로의 수급 쓸림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연초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분의 52%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3개 종목이 차지했다. 대형주 쓸림 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내 코스피(+16.7%) 상승률을 상회한 종목 수도 81개 기업에 그치며, 약 90%가 넘는 기업들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은 6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술적 과열 부담 및 쓸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여타 종목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 내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코스피가 5,000pt 도달할 경우 향후 종목 확산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코스피가 각각 3,000pt, 4,000pt 마다 지수 레벨을 도달하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랠리 이후 숨고르기 국면 돌입이라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천 단위 레벨이 일종의 빅피겨 저항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가 5,000pt까지 약 1.8%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심리적 저항선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점은 코스피가 천 단위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난 이후 쓸림 현상이 일부 해소되며 동시에 상승 종목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업종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스피 레벨대가 분기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 1개월 수익률 기준 코스피를 상회한 업종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 가능하다. 즉, 분기점 돌파 이후 코스피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일부 쓸림이 과도했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종목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이를 기존의 주도주 하락, 소외주 상승이라는 단편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현재 당면한 증시 여건, 내러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랠리(3,000pt) 이전과 이후 증권, 은행, 보험 등 새 정부 정책 수혜주는 지속적으로 주도주 지위를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2차 랠리(4,000pt) 당시에도 AI 모멘텀 확산에 힘입어 IT하드웨어와 유틸리티 등은 주도력을 유지했다. 현재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펀더멘털에 기반한 종목 선정이 유효한 시기이며, 종목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종목 선정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거래대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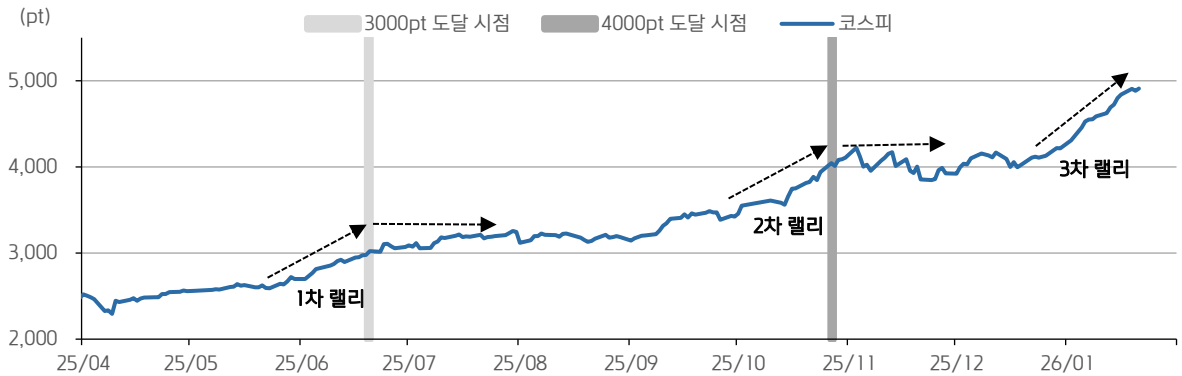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동일가중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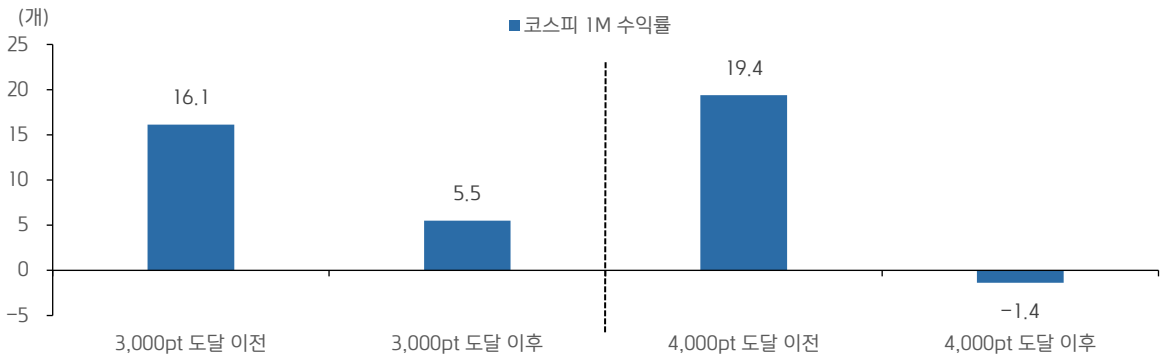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코스피 3,000pt, 4,000pt 도달 이전과 이후 코스피 주가 추이 : 천 단위 마디지수 도달 이후 숨 고르기 국면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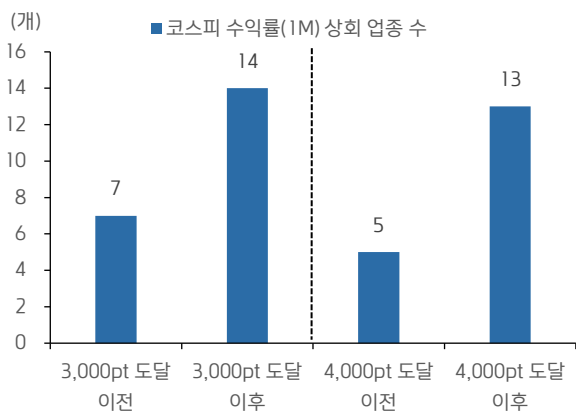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코스피 3,000pt, 4,000pt 도달 이전과 이후 1개월 코스피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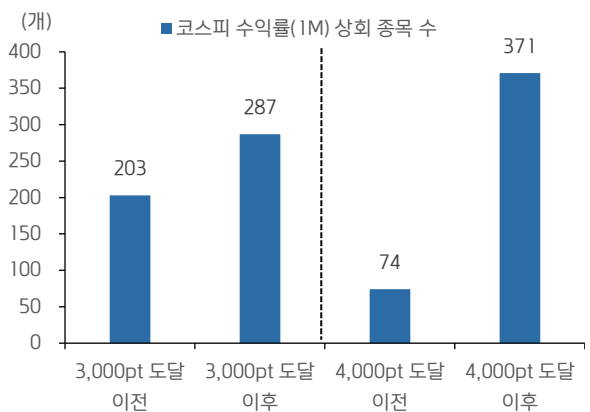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3,000pt, 4,000pt 도달 이전과 이후 코스피 수익률 상위 업종 수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5년 기준

3,000pt, 4,000pt 도달 이전과 이후 코스피 수익률 상위 종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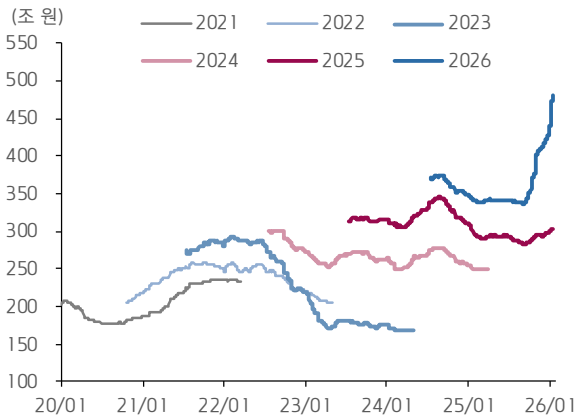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5년 기준

탄력적인 실적 전망 개선과 높아진 반도체 영향력

연초 이후 연속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증시는 전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재차 상승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그리고 연초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음에도 코스피의 12개월 P/E는 10.48배에 위치하며 지난 5년 평균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근거로 대외 변동성 확대에도 충격을 제한시키는 배경 중 하나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개선된 실적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483 조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그 결과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25년 대비 약 180조원 증가한 60%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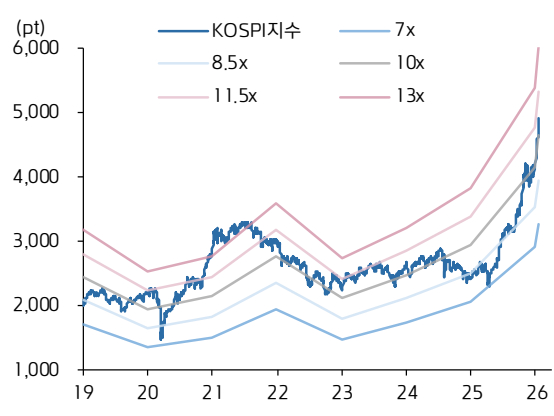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30%를 상회한 경우는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적 하락 사이클로 인한 기저 효과가 반영된 해에 연출되었다. 올해의 실적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2015~2017년에 이어 3개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연간 실적 성장률 그리고 3개년 연속 성장이 흔치 않지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2025년 정체된 이후 연말/연초에 들어서 본격적인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두 자리 수 중반의 (+)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중 약 45%를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며, 2005년 이후 국내 증시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업종과 이외 업종 간의 실적 탄력 격차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벌어져 있는 점은 향후 반도체 업황의 실적 변화에 따라 국내 증시 전반의 방향성 또한 민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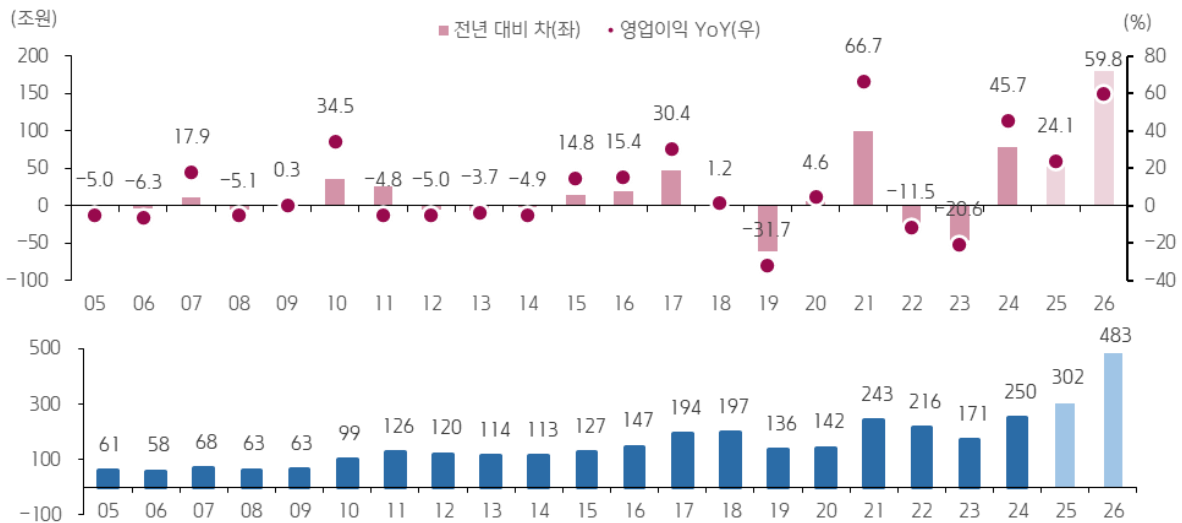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P/E(Fwd. 12M) 밸류에이션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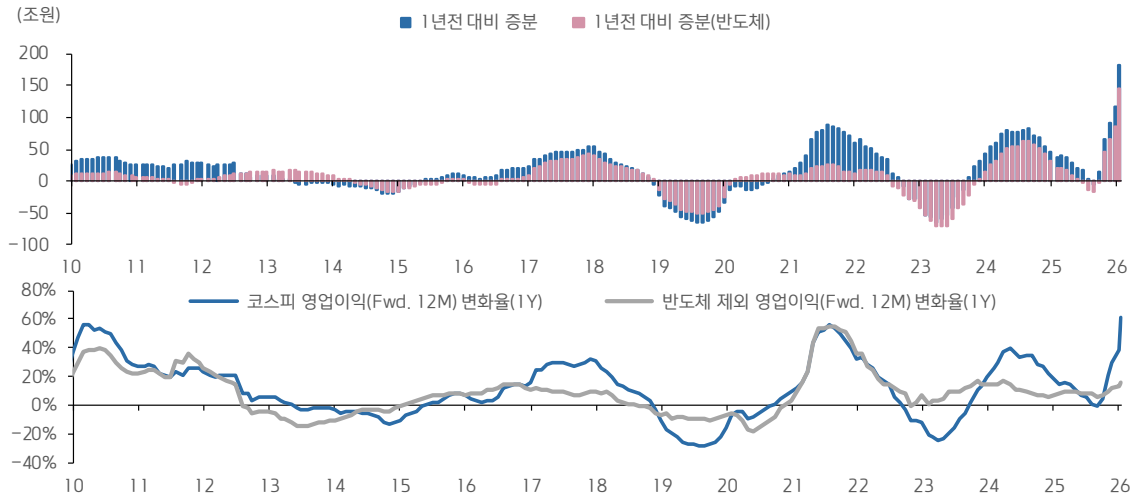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 증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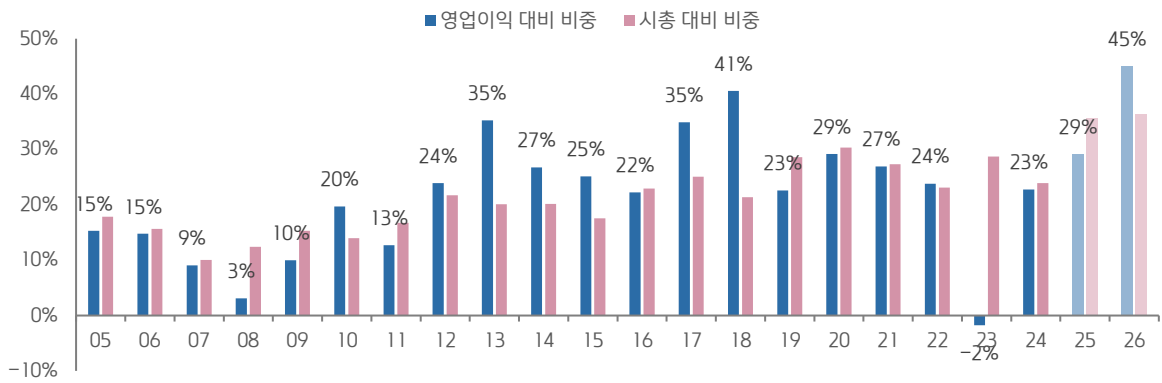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Fwd. 12M) 변화 및 증가율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중 반도체 업종 비중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4Q 어닝시즌: 양호한 성장률 전망에도 이익모멘텀은 부진

코스피 기업들의 4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4분기 영업이익은 약 83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4분기에는 성과급 등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며 시장 컨센서스를 약 15%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온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역시 컨센서스보다 낮은 50%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업종 전반적으로는 전분기와 비교해 YoY 성장률이 확대되는 업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닝시즌을 앞둔 최근 한달 사이 수정된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높아지는 업종들은 제한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업종별 영업이익 성장률 및 4Q 전망 변화율

(십억 원, %)		2Q25	3Q25	4Q25E	1Q26E	4Q EPS ERR(1M)	4Q EPS 변화율(1M)
코스피	영업이익	68,948	86,040	83,011	103,792	-8.8	7.8
	(YoY)	-2.8	25.6	74.0	59.2		
에너지	영업이익	878	4,188	2,036	3,034	-7.1	-48.6
	(YoY)	-64.6	흑전	157.5	133.7		
화학	영업이익	164	676	60	531	-19.3	적지▼
	(YoY)	-76.8	462.7	적지▲	-28.6		
비철,목재등	영업이익	555	457	455	547	17.4	2.2
	(YoY)	-34.2	17.2	193.4	55.4		
철강	영업이익	1,033	961	649	940	-15.6	-33.7
	(YoY)	-26.3	-2.8	흑전	48.8		
건설,건축관련	영업이익	1,674	1,437	1,114	1,194	-10.1	37.1
	(YoY)	9.5	47.5	흑전	8.3		
기계	영업이익	1,940	1,778	1,649	1,493	3.5	0.7
	(YoY)	4.6	55.0	31.9	22.6		
조선	영업이익	2,299	2,599	4,485	4,702	0.0	5.9
	(YoY)	169.0	177.8	108.5	48.0		
상사,자본재	영업이익	6,804	8,404	8,151	5,887	-5.8	-1.6
	(YoY)	37.3	55.8	43.1	21.6		
운송	영업이익	1,465	1,105	1,358	1,606	-17.1	-4.9
	(YoY)	-30.8	-68.4	-43.8	18.5		
자동차	영업이익	9,153	6,822	6,784	7,365	-18.1	-4.8
	(YoY)	-15.3	-25.2	8.0	11.4		
화장품,의류,완구	영업이익	1,779	1,840	1,114	1,360	-7.7	-1.3
	(YoY)	1.6	15.5	35.5	9.6		
호텔,레저서비스	영업이익	170	201	211	229	11.1	0.2
	(YoY)	14.7	41.4	141.0	19.1		
미디어,교육	영업이익	248	210	224	178	-29.0	-25.8
	(YoY)	12.5	-0.3	17.3	85.6		
소매(유통)	영업이익	433	730	799	715	8.1	-3.3
	(YoY)	5.0	14.1	137.2	10.3		
필수소비재	영업이익	1,987	2,329	1,319	1,418	-15.5	-4.2
	(YoY)	1.3	0.3	5.0	6.7		
건강관리	영업이익	1,226	1,690	1,431	786	6.5	1.4
	(YoY)	45.2	52.2	92.0	91.5		
은행	순이익	7,143	7,161	3,153	6,637	-34.2	-10.9
	(YoY)	9.7	8.7	12.6	4.2		
증권	순이익	3,002	2,994	1,939	2,625	31.9	14.9
	(YoY)	42.5	43.9	68.0	25.3		
보험	순이익	2,856	2,825	1,084	2,146	-18.2	-13.9
	(YoY)	-5.9	18.9	45.1	6.5		
소프트웨어	영업이익	1,824	1,956	1,795	1,869	-14.1	-4.4
	(YoY)	4.0	24.1	32.6	14.8		
IT하드웨어	영업이익	220	644	795	675	7.7	1.8
	(YoY)	적전	49.3	130.2	75.0		
반도체	영업이익	14,103	23,745	34,801	45,192	41.2	20.6
	(YoY)	-12.2	45.0	136.6	218.4		
IT가전	영업이익	-17	258	-411	1,202	-12.8	-40.2
	(YoY)	적전	적지▼	적지▲	24.8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99	436	431	157	0.0	0.0
	(YoY)	적지▲	흑전	279.2	369.7		
통신서비스	영업이익	1,658	751	551	1,370	-64.3	-54.2
	(YoY)	29.2	-39.6	흑전	9.4		
유틸리티	영업이익	2,920	6,463	4,445	5,692	4.9	2.9
	(YoY)	50.0	흑전	14.0	13.1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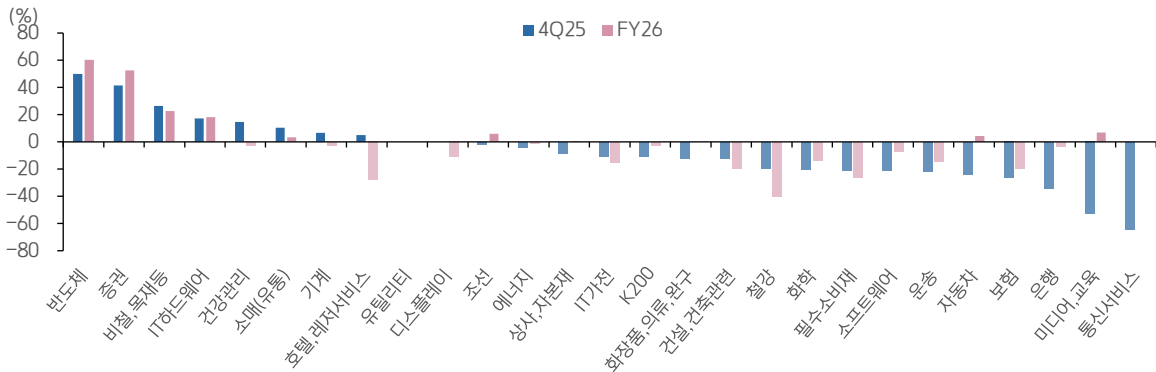
주1) 금융 업종은 순이익 기준

주2) ERR(Earnings Revision Ratio)은 이익조정비율

코스피의 경우, 4분기 주당순이익 규모는 1개월 전과 비교해 약 8% 상향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된 비율(이익조정비율)을 살펴보면 -9%를 기록하면 하향 조정 의견이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은 하향되는 의견의 수가 많으나,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소수의 대형 종목군의 규모 효과로 인해 증시 전체의 이익 수준은 상승한 것이다. 이는 연초 이후 소수 종목 주도로 증시의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결국 펀더멘털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루어진 실적 전망 수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금번 4분기 어닝시즌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업종을 비롯해 증권, 비철소재, 건강관리, 소매 등으로 판단된다. 그 외 기계, 조선, 방산 등도 올해 실적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 업종별 4Q25, FY26 이익조정비율(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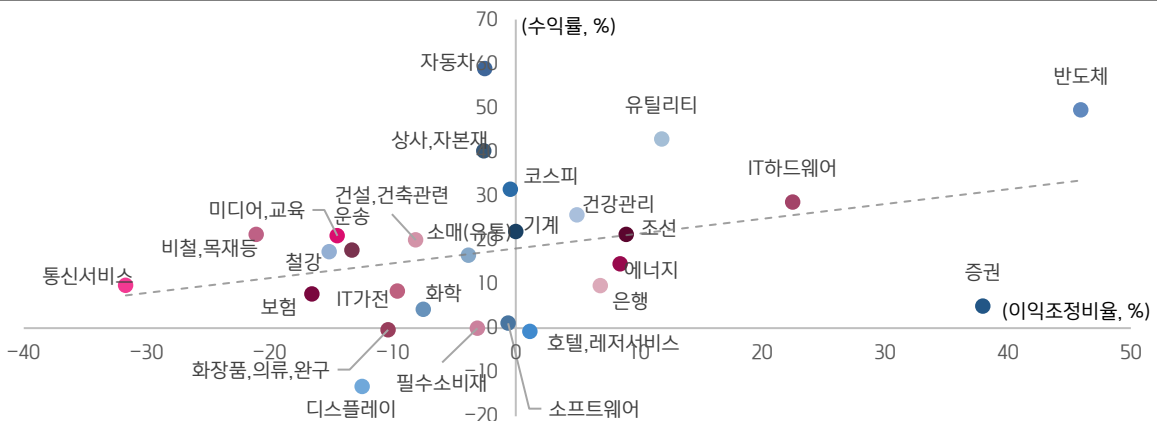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풍부한 유동성 하, 실적과 멀티플 개선의 힘 겨루기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의 주가 설명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미래 성장 기대감에 따른 멀티플 리레이팅 또한 동반되며 증시 강세를 양방향에서 이끄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로의 투자 관심 확대 그리고 높은 대기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장세가 단기에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연초 이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확대된 종목군들은 변동성 확대 시 차익 매물 출회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업종별 최근 3개월 주가 수익률과 이익조정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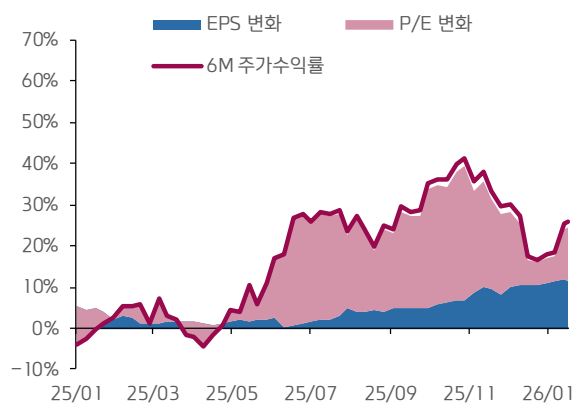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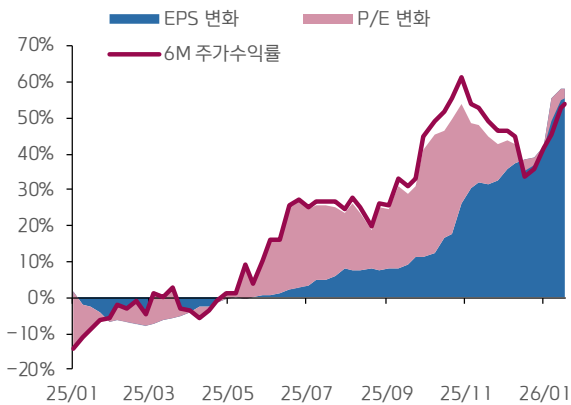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의 최근 6개월 주가 수익률을 실적(EPS)과 기대감(P/E)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난 연말부터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실적보다는 멀티플 개선에 기인한 부분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코스피 업종별로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을 분해해보면, 특히 피지컬AI 관련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자동차 업종의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상사자본재, 조선, 기계, 철강 등도 PER 변화에 기인한 주가 상승세가 여타 업종 대비 큰 모습이었다. 미국발 트럼프 리스크 확대에도 전일 국내 증시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매크로 및 정치불확실성과 단기 상승 속도 부담을 감안했을 때, 모멘텀 트레이딩에 집중하기 보다는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높지 않고, 지속되는 이익모멘텀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실적 가이드를 쌓아갈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주요 스타일 동향을 살펴보다도, 연초 이후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며 규모 그리고 모멘텀 스타일이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으로 매출 변화율과 같은 이익모멘텀 팩터의 주가 설명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연초는 기업들의 연간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주요 스타일 팩터 중 이익모멘텀 관련 팩터의 성과가 평균적으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유동성에 기반한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마디 지수 도달 이후 현재의 주가 수준을 소화하는 변동성 구간 연출 가능성에 대비해 이익모멘텀 개선 종목군들 중, 목표주가 기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종목군들로의 선별해 볼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코스피, 최근 1년 주가수익률(6M) 동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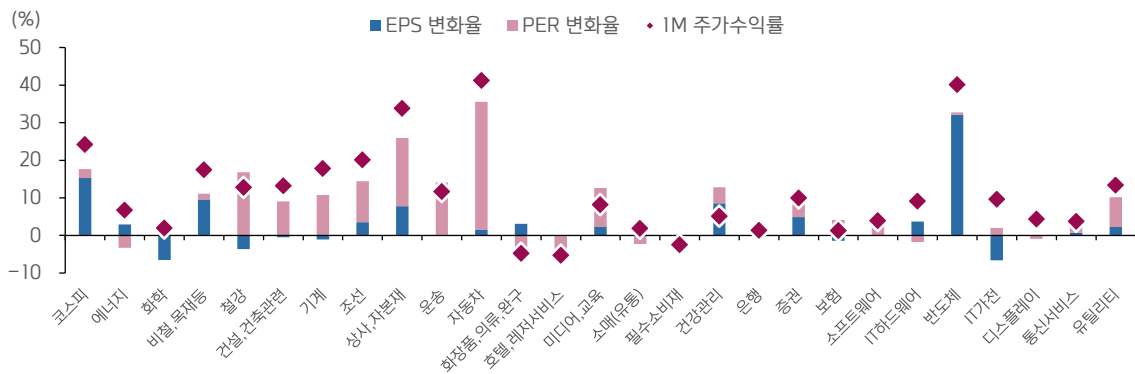
코스피 반도체 제외, 최근 1년 주가수익률(6M) 동인 분해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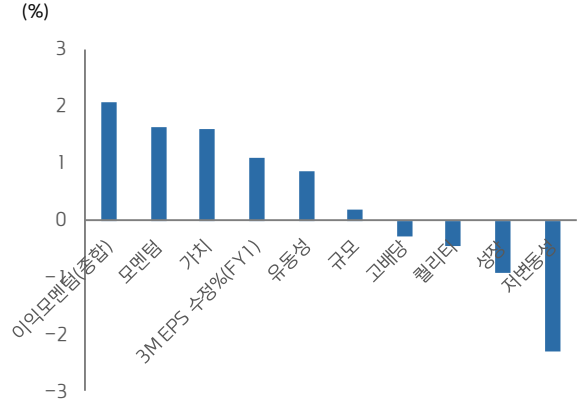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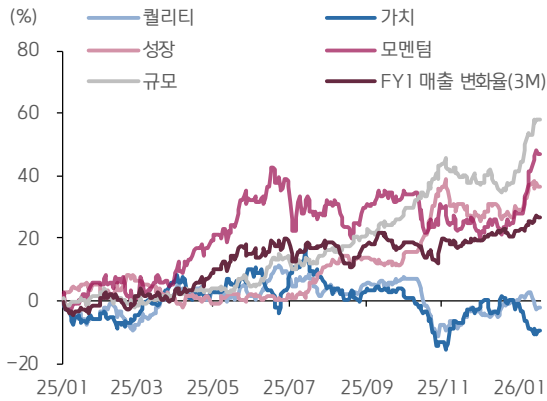
코스피 업종별,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 분해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 '25년 이후 주요 스타일 롱/숏 누적 성과

주요 스타일 최근 10년, 1월 평균 스타일 성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익모멘텀 보유 및 목표주가 대비 상승 여력 보유 종목군

종목코드	기업명	W126업종	시가총액 (십억 원)	영업이익 증가율			목표주가 과리율 (%)	P/E (F.12M) (배)	P/B (F.12M) (배)	주가 수익률	
				4Q25E (YoY)	4Q25 (QoQ)	2026E (YoY)				1M(%)	3M(%)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884,986	208.0	64.4	175.8	16.8	9.88	1.89	40.6	53.3
A012450	한화에너지스페이스	상사,자본재	67,806	31.2	37.8	28.1	20.4	27.63	5.85	48.8	35.0
A105560	KB금융	은행	52,184	0.3	- 56.0	6.5	20.1	8.42	0.76	9.3	17.4
A028260	삼성물산	상사,자본재	50,823	32.2	- 15.6	13.0	15.4	20.88	1.33	20.1	46.2
A068270	셀트리온	건강관리	47,116	118.9	42.6	45.1	21.0	35.66	2.32	10.6	14.2
A055550	신한지주	은행	39,422	54.7	- 47.1	5.7	23.5	7.42	0.63	5.1	9.9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32,226	69.4	14.1	28.6	21.0	33.02	11.52	10.8	31.9
A010140	삼성중공업	조선	26,884	76.5	29.2	71.6	22.3	21.18	4.48	20.3	28.9
A009150	삼성전기	IT하드웨어	20,914	98.6	- 12.2	35.0	21.7	21.91	2.05	10.7	29.6
A010950	S-Oil	에너지	10,346	71.5	66.4	475.9	19.0	12.33	1.10	12.8	35.0
A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10,070	196.6	- 45.8	- 1.9	30.6	5.81	0.82	11.1	4.3
A278470	에이피알	화장품,의류,완구	9,601	181.5	16.2	41.7	25.2	23.66	11.28	5.6	10.8
A016360	삼성증권	증권	7,287	46.7	- 23.0	12.0	26.3	6.47	0.82	3.4	6.1
A011070	LG이노텍	IT하드웨어	6,603	50.7	83.4	20.9	24.6	10.92	1.03	-0.7	25.4
A103140	풍산	비철,목재등	3,422	176.6	120.0	18.7	31.5	13.70	1.32	19.9	2.5
A018880	한온시스템	자동차	3,335	흑전	- 19.3	32.1	29.2	19.36	0.91	5.5	-11.2
A014680	한솔케미칼	화학	2,964	26.4	- 41.7	23.5	25.6	15.63	2.24	19.1	26.6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